

월요광장



정봉남  
전 순천 기적의도서관장

## 시대를 읽는 사람들

기 노리코'의 시집 번역본 출간을 알렸다. 송몽규의 추모일(3월 7일)에 서울에서 모인 친구들은 연세대 핀스홀이 올해 12월 '운동주 기념관'으로 새 단장 중이라고 현장 사진을 남겼다.

일본 교토에 있는 운동주 시비 세 곳을 다녀오자고 약속하면서 소설가이자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작가 송우혜 선생을 만났다. 알게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들 덕분에 '운동주 평전'을 제대로 읽었다. 1917년 복간지의 역사와 마을 풍경과 병동학교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역사의 실체가 만져지는 느낌. 세계사의 흐름과 조선의 운명과 시인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들을, 익숙한 독립 운동가들의 이름과 그들의 목숨 같은 열망과 숨은 이야기들을, 지금 현재의 삶과 맞닿아 있는 그때 거기 그 사건들의 의미를 촘촘히 알 것만 같았다.

쓰면서 발견된 진실과 기록과 진술과 실제에 따라 계속 고쳐 썼다는 지난한 작업들, 그렇게 손에 닿은 개정판 3쇄본은 독립 운동사의 기념비적인 기록이 될 것이다.

운동주 문학 기행의 잊지 못할 순간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대한 감동이 가장 컸다. 교토대학의 '미즈노 나오키' 교수는 '교토대학

문학부 사학과 송몽규의 25년 후배'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일본조선사, 동아시아 관계사를 연구하는 일본의 진보학자다. 일본 유학 시절 운동주와 송몽규 두 사람의 연구에서 알려져 있지 않았던 사실과 잘못 이해되어 온 것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재일조선인' '창씨개명' '생활 속의 식민지주의' 등의 저서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인도 관심 갖지 않는 부분을 연구해 식민지 청년의 고뇌를 읽어 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 한 사람, '운동주 시를 읽는 모임'의 대표인 '마나기 마키코' 씨다. 이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운동주의 시 한 편을 읽는 독회 모임을 연다. 어느덧 25년 이라니! 해마다 2월 16일에는 시인의 독립방이 있었을 자리 앞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한다. 그녀는 도시사대학 출신으로 연세대에 유학했으며, 뒤늦게 운동주를 알고 평생 그의 시를 읽고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붓끝을 따라온 귀뚜라미 소리에도 벌써 가을을 느낀다'라는 동생의 편지가 "너의 귀뚜라미는 홀로 있는 내 감방에서도 울어 준다. 고마운 일이다"라고 답장을 썼다는 시인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녀는 '귀뚜라미와 나와'를 낭송하면서 울먹였다.

옛 형무소 터였던 작은 공원에 내리쬐

는 햇볕은 더없이 따스했다. 바람 한 점 없이 맑고 파아란 하늘에는 무심한 구름이 흘러갔다. 흙 없는 영혼의 죽음은 눈부시게 큰 슬픔이었다. 도시사대학 '서시' 시비 앞에서, 지금은 교토조형예술대학 캠퍼스가 된 운동주 하숙집 터 시비 앞에서, 소풍 나온 동주가 아리랑을 불렀다는 우지가와 강 귀퉁이 '새로운 길'이 썩어진 기억과 화해의 시비 앞에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낭송하는 시간들이 기억났다. 밤이 깊도록 우리들은 동주와 몽규, 두 젊은이의 발자취를 따라 헤매었는데 어느 밤에는 가랑가랑 찬비가 얼굴을 적었다. 젊음은 거기 오래 남아 있었고, 어느새 '운동주'는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고 있었다. 일본의 감옥에서 생체 실험으로 죽은 시인은 그를 죽인 일본인들까지도 인류 구성원으로서 삶의 존엄을 배우는 연대의 장으로 초대하고 있다.

운동주의 시를 읽으며 연결되는 세계를 아주 천천히, 오래도록 품어 보려 한다. 그의 생애와 사랑과 고뇌, 그의 시대와 운명과 시, 일제에 이는 바람과 하늘과 별과 십자가를 말이다. 질곡의 시간 속에 피어난 절망! 그 안에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나의 길 새로운 길'이 숨쉬고 있지 않을까.

수시로 카톡 알람이 울리고, 열어 볼 때마다 새로 발견한 정보와 소식들이 올라온다. 어떻게 이런 걸 찾아냈는지 반가워서 댓글을 주고받다 보면, 공유를 통한 경험의 세계가 자꾸만 커진다. 순결한 영혼 운동주를 만나러 일본으로 문학 기행을 다녀온 친구들의 단복방. 전국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접속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운동주의 시를 좋아해서 여행 팀이 꾸려졌는데 운동주와 그의 시대를 읽어 가는 학회가 만들어질 정도다.

중국 상해로 출장 간 친구는 '송몽규 평전'(연변대학출판부)을 발견했다고 알려 왔고, 또 한 친구는 중국 냉안에 있는 서점에서 '항일련군의 여전사들'이라는 책을 사왔다고 알렸다. 다른 친구는 '중국 조선족 유래와 20세기 초기의 학교'를 함께 읽자 했고, 운동주의 시를 일본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은 '이바라

社說

## 전두환 단죄 법정에 맡기고 차분히 지켜보자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광주 법정에 서게 된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으로 재판을 받은 지 23년 만에 '5·18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어서 온통 그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씨에 대한 재판은 오늘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광주지법은 그동안 두 차례나 재판 기일을 잡았지만 전 씨가 출석하지 않자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번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도 이날 오전 전 씨의 광주행에 서대문경찰서 소속 형사 팀 10여 명과 경호대를 동행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조 신부의 5·18 당시 헬기 사격 목적 증언이 거짓이라며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가족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쟁점은 회고록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쓴 내용이 허위인지, 전 씨가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썼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와 검찰 조사 등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입증됐다.

5·18 만행에 대한 전 씨의 반성 없는 태도는 일부 극우 세력들에게 역사 왜곡의 발미를 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광주 시민들은 전 씨가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악을 바로잡아 달라고 있지만 기대한다.

그럼에도 이번 재판 과정에서 5월 단체들이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칫 격양된 반응을 보일 경우 전 씨에게 재판을 회피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발표 명령자 색출 등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차분하고 엄정한 재판을 통해 작은 단죄나마 이뤄졌으면 한다.

## 문화전당·문화원 통합 마스터 플랜이 없다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를 지낸 바 있는 광주 출신 박양우 중앙대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내정됐다. 이번 박 장관 내정으로 문체부 소속인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에 새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문화전당장은 3년 넘게 공적으로 남아 있어 전당이 문화발전소로서 뚜렷한 역할을 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두 조직의 통합과 전당장 직급 상향도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 할 과제들이다. 감독 기관인 문화전당과 콘텐츠 창·제작 업무를 위탁받은 문화원이 '2원 체제'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그동안 수차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국가 예산 지원의 근거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도 내년 4월이면 만료된다. 문화전당 운영을 문화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당초 이 법에 따르면 '5년 후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전부 위탁 한다'는 부칙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부칙은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고 이후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만약 통합을 거쳐 법인화 형태로 운영된다면 아시아문화원은 독립재단제 형태로 운영돼 수익을 창출해야 하지만 현재의 인적 구성이나 여건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더욱이 현재로서는 광주시나 시의회 및 시민 사회 등의 의견이 통합돼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중지를 모으는 절차나 움직임도 없는 상태다.

따라서 늦게나마 지역사회의 중지를 모아 전당 운영에 관한 마스터플랜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민선7기에서는 문화경제 부시장제를 도입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정치권과 중앙정부에도 전달하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다. 한편으로 특별법 시효 연장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법조칼럼

## 외국인 근로자에게 따스한 시선을

위와 같은 이유로 리비아에 입국하였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제가 리비아 건설 현장 소장으로서 근무하던 곳에서 막노동인부 등으로 일을 했던 관계로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건설 현장이 늦게 끝나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조지와 프랭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제가 살던 집으로 데려가 저녁을 대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배불리 먹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친해지게 되자, 조지와 프랭크는 그들의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들은 가나의 평균 월급이 미화 50달러여서,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실사 부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킬 수 없어 가난이 대물림된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리비아로 밀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밀입국을 하려면 밀입국 알선 업자에게 500달러는 쥐야 하므로, 2년간 돈을 어렵게 저축해야 불법 입국이라도 꿈꿀 수 있다고 합니다.

가나에서 리비아 국경까지 오는 과정은 큰 위험이 없으나, 리비아 국경에서부터 트리폴리까지는 죽을 고비를 두세 번 겪어야 하고, 대략 20~30%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뜨거운 사막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 탈진으로 죽는 경우가 일부 있

고, 나머지는 사막 도적에 의해 죽는 경우입니다. 국적을 알 수 없는 사막 도적들은 흑인들이 밀입국하는 루트를 잘 알기 때문에 거의 모든 밀입국 흑인이 그들을 두 번 이상 만난다고 합니다.

사막 도적들이 맨 처음 하는 짓은 흑인들을 발가벗기고 옷을 뒤집으며 운동화 뒷장을 잘라 숨겨둔 돈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랭크의 친구 중 한 명이 출국 2주 전 맹장 수술을 해 그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막 도적들은 배 속에도 돈을 숨겨놓은 것이라며, 수술 자국을 다시 칼로 잘라 배 속을 뒤졌고, 결국 그는 출혈과 감염으로 고통을 겪다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트리폴리에 도착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이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막노동을 하여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은 200달러 내외인데, 고국에 보내는 돈을 제외하고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70달러 정도입니다.

그 돈으로 식비 해결도 빠듯하기 때문에 잠은 수십 명이 모여 자고,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잠도 편히 잘 수도 없다고 합니다. 아파도 밀입국자인 탓에 적절한 치료를 받기가 어려워 다치거나 아프지 않기 위해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조지와 프랭크의 얘기를 듣고 동시대에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처한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실감하면서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조지는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 있어서 다행이고, 앞으로 2~3년만 더 돈을 모으면 가나로 귀국해서 중고 택시를 사 운전할 수 있게 되면 가족과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며 밝은 표정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 조지가 2015년께 가나로 무사히 귀국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지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았듯이, 귀국한 이후에는 가족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밀입국자는 아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그들에 대한 인권 문제나 체불 임금, 그리고 폭력 사건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난에 상당수는 우리가 조금만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포용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였을 것입니다. 넓게 보면 같은 동포나 민족은 아니지만, 그들이 동시대에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같은 인간이자 타국에서 고국의 가족을 위해 고생하는 아빠이자 엄마라는 점을 이해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좀 더 따스한 시선을 보내줬으면 합니다.



이광재 변호사

저는 1992년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체에 입사해 해외 수출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께 2년여간 북부 아프리카인 리비아에 상주하면서 건설업 등을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리비아는 가다피 집권 후 산유국인 이점을 잘 활용한 덕에 주변국에 비해 소득이 높아 피부색이 비슷한 이웃 나라인 이집트는 물론, 멀리 나이지리아, 가나, 토고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몰려 들었습니다.

중고와 피부색이 같은 이집트 사람은 대부분 합법적으로 입국하는데 반해 나이지리아, 가나, 차드 등과 같은 국가 출신은 거의 모두 불법적으로 입국을 하였습니다. 리비아에서 만난 불법 입국자들은 입국 과정에서 생사의 갈림길을 여러 번 겪기도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조지(George)와 프랭크(Frank)는 모두 흑인으로 가나(Ghana) 출신인데,

기고

## 2030세대도 이젠 국가 건강 검진 혜택 누리자

포함돼 약 720만 명이 새롭게 국가 건강 검진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해당 되고 전역 공단 부담으로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20~30대 중 직장 가입자와 세대주들 제외 한 직장 피부양자와 세대원은 국가 건강 검진에서 제외되면서 청년 세대간 형평성 문제, 만성 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 개선의 요구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세대간 형평성은 물론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전체 가구 수 1967만 중 561만 가구가 1인 세대로 28.6%를 차지했다고 한다. 특히 청년층 1인 세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학업과 취업난 등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주로 혼밥, 인스턴트 식품 섭취 등 영양 불균형 식습

관으로 지난 10년간 고도 비만율이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30대 검진 수검자 중 비만율은 20대 13%, 30대 22%로 전체(23%)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사증후군 또한 20대 12.5%, 30대 27%(전체 28%)로 비만율과 비슷하다.

20대 당뇨 환자 수 또한 2013년 1만 7000여 명에서 2017년 2만 4000여 명으로 5년간 약 39% 증가하여 청년층의 공복 혈당 장애와 혈관계 질환 위험 인자인 만성 질환 유입이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2019년부터 시행되는 2030세대 검진 항목을 살펴보면 신체 계측(사각, 청각, 비만, 혈압)과 혈액 검사(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빈혈, 간질환, 신장질환, 소변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결핵과 만성 폐질환) 등이다. 또한 본인 선택에 따라 구

강 검진과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3년에는 4만 7000여 명, 2017년 7만 5000여 명으로 5년간 58.4%가 증가해 전체 연령대의 평균 증가율인 16.5%의 3.5배에 달하고 있는 만큼 우울증 검사가 검진 항목에 포함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2030대 건강검진은 질병 조기 발견 목적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과 관련된 교정 가능한 위험을 예방하자는 차원이다. 치료의 기적보다는 조기에 검진을 받아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생일 달 검진 받기' 등 조기 검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40%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는데 연말이면 검진 기관이 혼잡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따른다. 국가 건강 검진으로 미리미리 건강도 챙겨올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기원한다.

無等鼓

북한을 지켜보면 늘 빛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북한 주민은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것일까?" "젊은 독재자가 며칠 동안이나 나라를 비웠는데도 왜 아무런 일이 없을까?" "도대체 무엇이 북한 정권을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가?" 이들 질문은 결국 한 가지로 요약된다. "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저서 '호모데우스'에서 '루마니아'의 예를 들어 해답을 제시한다. 하라리에 따르면, 독재자 차우세스쿠와 그 일당

## 세 가지 조건

이 무려 40년 동안 2000만 명의 루마니아 민중을 철저히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조건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첫째, 군대를 비롯해 사회를 구성하는 온갖 기관·집단의 통제권을 총성스러운 공산당 기관원에게 맡겼다. 둘째, 공산당을 조공이라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경쟁 조직의 창설을 막았다. 셋째, 소련과 동유럽에 있는 자매 공산당들의 지원을 받았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분석은 아닐지라도 루마니아의 사례와 비교한다면, 북한에선 아직 이들 '세 가지 조건'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공산당이 여

한 경쟁 조직의 위협도 없이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 강력한 우방의 지원도 받고 있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최근 '결렬'로 끝난 북미 정상 회담은 북한의 '강고한 독재 방벽'에 미세한 균열도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패한 지도자에 대한 실망'이 조직 내부의 충성도를 약화시키고, '비핵화 없는 경제 해제'를 끝내 거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중국과 러시아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라리는 "루마니아 독재 정권은 주변 공산 정권의 붕괴로 우방의 지원이 끊어지는 가운데 독재자 스스로 허점을 드러내고, 내부 공산당마저 분열되는 등 세 가지 조건이 유지되지 못하면서 결국 무너져 내렸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 북미 회담 실패 소식이 빠르게 번지면서 당국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북한의 맹방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이어 가고 있는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북한 정권을 지탱해 온 세 가지 조건도 조만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홍행기 정치부장redplane@



이원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

복을 맞으면 누구나 새로운 꿈과 소망을 꿈꾸며 새 출발에 대한 기대로 설레인다. 그중에서도 가족들의 건강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소망일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4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인 성인병 예방을 위한 '일반 검진'과 사망률 1위인 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2030세대가 검진 대상에

<b>光州日報</b>		<b>The Kwangju Ilbo</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동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경 처 부 220-0632 정 재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납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제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